

골목길 모퉁이의 그 꽃

이한결

신선한 바람이 불고 싱그러운 풀이 돋아나는 봄, 나는 익숙했던 학교를 떠나 낯선 중학교에 도착했다.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, 며칠이 지나고 나는 어찌 저찌 학교에 적응하여 반 친구들과 조금씩 친해져 가는 중이었다. 학교 교칙도 잘 지키고 선생님들의 얼굴도 익힐 때쯤, 나와 친구들은 학교에 모두 적응이 된 참이었다.

마음이 편해지면 주위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던가. 나도 그랬던 것 같다.

우리 학교는 용현여중과 한 골목길을 두고 마주 보고 있다. 우리 집에서 학교로 가려면 그 골목길을 통해 등교해야 한다, 그 골목길 이름은 휘파람길인데, 휘파람길을 따라 예쁜 장미들이 줄지어 있어 유명하다.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는 4월이 되자 휘파람길 골목도 장미로 가득 찼다. 내 친구들도 등굣길에 아름다운 장미를 보며 칭찬했다.

“야, 저 장미가 제일 예쁜데?”

그때는 나도 빨갛고 탐스러운 장미의 아름다움이 눈에 띄었다.

다음날, 언제나 그렇듯 잠에 다 깨지도 못하고 등교를 하던 중이었다. 그날따라 제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걷고 있던 중, 돌부리에 걸려 넘어 질뻔했다. 바닥에 떨어진 놀란 가슴을 주워 담을 때, 눈 앞에 이름 모를 들꽃이 하나 있었다. 그때는 그저 한번 만난 이름 모를 들꽃이었다. 하지만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바뀌었다. 신기하게도 등교할 때마다 그 들꽃이 눈에 들어왔다. 들꽃은 장미 밑에 있어 보기도 힘들지만 계속 내 눈에 들어왔다. 귀여운 노란 색에 어디서든 보기 쉬운 쌍떡잎 꽃이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 꽃만 보였다. 노란색 꽃잎이 퍼질까 말까 한 모습이었는데, 빨간 장미와 다르게 조그마한 것이 귀엽고 그 꽃만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. 또 한번 신경 쓰이면 계속 눈과 귀에 들어오는 내 성격 때문인거 같기도 하다.

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등굣길에 매일 같이 보이는 그 꽃의 이름이 궁금해졌다. 우연의 일치로 학교에서 생물사랑수업이 있어 수업시간에 꽃 이름을 물어보았다.

“선생님 이 꽃 이름은 뭔가요?”

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는데 선생님께서는 ‘애기똥풀’이라고 하셨다. 이름을 알고 나니 더 특별하게 보였다.

몇 달 후 애기똥풀 위에 있던 장미가 모두 떨어졌다. 하지만 애기똥풀은

언제나처럼 곳곳이 서 있었다. 그 예쁘던 장미가 떨어지니 오히려 밑에 있던 애기똥풀이 더 예뻐 보였다. 이런 걸 보니 한순간의 아름다움보다는 많이 예쁘지는 않아도 오랫동안 꾸준히 살아가는게 더 아름다워 보였다. 현실도 그렇다 잠시만 빛나다 사라지는 사람은 결국 잊혀지지만 오랫동안 노력하고 연습하면 전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.